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대형 그룹 보험 회사에 의료상 필수적인 유방 조영술 검사의 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새년의 법(SHANNON'S LAW)에 서명

Cuomo 주지사: "모두가 알다시피, 암 진단에서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뉴욕주 여성의 유방암 검사를 막는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여성의 의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대형 그룹 보험 회사가 35에서 39세 여성의 의료상 필수적인 유방 조영술 검사에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S.3852-A/A.5502-A)입니다. "새년의 법(Shannon's Law)"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롱아일랜드 바빌론에 거주하던 Shannon Saturno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녀는 28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3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암 진단에 있어서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뉴욕주 여성의 유방암 검사를 막는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유방암 검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뉴욕 여성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인명을 구할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유방 조영술 검사 및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법안이 보험 적용, 조기 발견, 치료를 보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 유방암 검진을 장려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는 40세 이상 여성들의 연간 유방 조영술 검사만 필수적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진단되는 유방암은 연간 12,000건 이상이며, 후기에 발견되거나 공격적인 형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새년의 법(Shannon's Law)은 35에서 39세 여성의 연간 유방 조영술 검진을 필수적으로 보장하도록 대형 그룹 보험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Monica R. Martinez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매우 신뢰하며, 의료상 필요하다고 간주된다면 40세 이하의 여성들도 연간 유방 조영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애 유방암 유병률은 8명 중 1명으로 높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으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Kimberly Jean-Pierr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유방암을 늦게 진단받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의 나이를 불문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유방 조영술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간 유방 조영술 검사의 보장 나이를 낮추면 여성들이 너무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년의 법(Shannon's Law)은 오래전에 통과되어야 했던 사안이며, Cuomo 주지사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